

정부, 25일 오전 한미 FTA 협정문 공개

1,500여쪽 분량 외교부 홈페이지에

농업 등 일부 새로운 내용 포함...찬반 논란 재연될 듯

정부가 오는 25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공개한다. 이미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가 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뒤 조문과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된 만큼 일부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정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방식=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부 공개,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협정문 본문 및 요약서, 부속서까지 국문본과 영문본 각 1천200쪽이며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 자료 등이다.

◇농업분야 등 일부 새로운 내용=정부는 이미 80여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협상 결과의 핵심 골자를 발표했지만

이번 공개 자료에는 일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농업의 경우 품목별 자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배정 방식 등은 최근에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일단 국영무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쿼터물량은 입찰과 비슷한 형태인 수입권 판매, 선착순 배정, 가공업자 물량 배정 등 방식을 통해 배분,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부 배정하 국제농업협정은 "지난달 협상 타결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봤으나 미국은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구화하는 특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부속서를 통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골자는 발표된 만큼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산자부 운영선 외국인 투자기회관은 "1만여개에 달하는 상품 양허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이라며 "중전에 공개됐던 것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논란 재연될 듯=한미 FTA 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24시간내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을 벌인 뒤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이후에도 검토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6월말 본서명 시점을 전후해 대대적인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실제 제한적인 국회 열람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미 양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해석이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협정문을 열람한 결과, 방카슈랑스나 자본시장통합법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LA 코리아타운 총격 2명 사망

40대 한인, 식당주인 쏘고 자살

40대 한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대형 음식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현지시간)께 코리아타운 내 웨스턴가 1가에 있는 한식집 '서라벌'에 나와(47)씨가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주인 임모(51)씨와 잠시 말다툼을 벌이다 반자동 권총으로 쏘 살해한 뒤 자살했다.

식당 인근의 주민들은 범행을 저지른 나씨가 이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정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전 다툼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배경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 등 여러 명의 손님이 식사중이었으나 나씨가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과 시각

국민 외면한 공무원 노조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최근 영광군이 '공무원 본인 사망시 배우자나 직계 비속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세습' 또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공격이 쏟아졌고 군과 공무원 노조 측은 별다른 변명도 못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문제의 내용은 영광군과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2월 29일 작성한 단체협약서 가운데 27조(우선 채용) 조항. 이 조항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 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직인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료가 재난 등으로 숨졌을 경우 남은 가족을 돕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취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복리후생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노조의 특성과,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민선 지자체의 특수 상황이 같은 조항을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와 관련 영광군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때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무척 곤혹스럽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대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채용'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한 일부 불만도 털어놓았다. 그는 "무엇보다 공무원세습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며 "상근인력은 '공무원 중'도 나오지 않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임용직에 불과한 만큼 공무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물론 영광군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한 구청도 이 같은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해놓는 등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성회통 병가 및 수당휴가 허용, 해외배양순 확대 등 다소 무리해 보이는 복리후생 확대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의 단체협약이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노조가 내부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기보다 스스로 잇속만 챙기는 것 같이 부끄럽다"는 전남도 한 공무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redplane@kwangju.co.kr

'보복폭행' 상부지시로 남대문서 이첩

경찰 감사 "남대문서·광역수사대, 사건 이첩 반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시 때문에 남대문서로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장회근 남대문서장이 3월 하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경찰청에 이첩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서장이 당시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기초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으므로 남대문서가 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미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남대문서로 사건을 넘기기로 한 상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번 사건이

광역수사대와 남대문서의 반대 속에서 상부의 지시로 남대문서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층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 입장을 검찰조사 때 밝혔고 장 서장도 본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검찰이 끝까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서장은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검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 관계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이진영 강력2팀장의 소개로 이번 사건에 가담한 범서방과 행동대장 출신 폭력배 오모씨를 지난달 2~3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대거발령하고 수사 중이다.

한·중 군사 핫라인 8월24일 전후 개통

한국과 중국은 양국 수교 15주년 기념 일인 오는 8월24일을 전후로 군사핫라인을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랑광래(상장·67)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23일 오후 합참 회의실에서 환담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상용 국제전화 방식으로 개설하는 직통망은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의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 간에 설치된다. 또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내 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베이징방공센터를 연결하는 직통망도 개설기로 했다.

김 의장은 환담에서 지난 12일 중국 해상에서 침몰한 우리 화물선 골드포즈호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선박 조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는 9월 해군 순양함대의 상하이 방문 때 양국 수색구조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의했고 랑 총참모장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 총참모장 방한 의장대 사열

23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중국군 총참모장 랑광리에 육군 상징 방한 의장행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과 랑광리에 총참모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3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중국군 총참모장 랑광리에 육군 상징 방한 의장행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과 랑광리에 총참모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재정전략·기획통'... 부내 신망 두터워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오래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행시 16회)으로 조용한 카리스마와 정책 기획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예산처 재정전략실장로서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된 뒤 공공한 업무 스타일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복지부 내부를 챙겨왔으며 복지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기획예산처 공보관 시절에는 두주

불사형으로 소문 났으나 최근에는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테니스 등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부인 홍영기씨와 2남.

▲경남 밀양 ▲서울대 ▲대외경제조정실 조정3담당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기획총괄과장 ▲공보관 ▲기금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복지부 차관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피어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펌피어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공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할인 판매 실시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백열이형 에어컨 (6.8, 10평형)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입계 최초 펌피어 특별 리스로 개별계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심상,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062)955-4222, 080-701-7117

로템 갤러리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 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의자, 테이블, 침대, 소파, 식탁, 의자, 테이블, 침대

찾아오시는 길: 1가동 1층 - 백운동 - 상상디지털프라자 - 현대자동차 - 미래이동통신 - 로템

대표전화: (062) 653-4022
몰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